



## 이정우

FRONT-END DEVELOPER

1995.05.02. (만 25세)

010-9522-0890

awmaker@kakao.com

서울시 용산구

---

### 자기소개서

---

#### “제너럴리스트에 스페셜을 더하다.”

제너럴리스트란 여러 가지를 스페셜리스트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획과 디자인,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하고, 제너럴리스트는 협업을 위한 가장 완벽한 인재입니다.

직접 아이디어를 찾아 발전시키고 부족한 곳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는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복수전공하며 배운 지식으로 디자인, 개발팀과 소통하여 UI/UX 설계와 개발 중점사항에 자연스레 기획이 녹아들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장점을 실현시킨 경험이 비영리단체를 위한 회계장부관리 서비스 ‘카운트탭’입니다. 일부 비영리단체의 회계장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획한 공익성 프로젝트로 기획과 디자인, 개발팀을 꾸리고 직접 기획과 UI/UX 설계,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저와 팀원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행착오가 생겼고, 급격한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원활한 소통덕분이었습니다. 기획,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식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팀원 간의 소통창구가 되어 효율적인 개발과 직관적인 디자인의 최적점을 찾고, 그 안에 기획을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유저와 서비스를 이어주는 통로이자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직무가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적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직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술은 사람을 위한다.”**

군시절, 군사령부의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부대 내 사무실에서는 주먹구구식 사무처리로 언제나 오후 8시이후까지 추가근무를 하여, 병사와 간부 모두의 불만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 엑셀 내의 도움말을 참고하며 함수와 Visual Basic을 배워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처음 접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지만, 많은 노력 끝에 부대 내 모든 사무실의 효율적인 사무자동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비결은 독학으로 공부한 개발능력도 있었지만, 심리학전공서를 취미로 볼 정도로 사람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평소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연구하던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의 야간근무는 없어졌고, 사무부담이 줄어들어 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공로로 지휘관에게 특별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쉽게 업무할 수 있도록 도운 경험을 살려 클라우드 플랫폼도 사용자가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이타적인 향상심을 품어보다”**

개발자인 선배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저보다 빠르게 코딩을 시작한 친구들에게도 실력이 앞설 수 있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선순환을 다시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친구들에게 배운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든든한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팀원과 함께 성장하며 훨씬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가진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취업 후 회사에서 이어나갈 선순환은 더 뛰어난 서비스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이정우